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다 '이용규' 기획자

Q. 당신은 누구신가요?

A. 완주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 완두콩의 이용규라고 합니다.

완두콩을 알려주세요.

201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차례씩 소식지를 2020년 6월까지 93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완두콩 이름의 의미는?

완두콩이 시골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콩의 종류인데, 완두콩을 열어보면 콩이 대개 서너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가, 한알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한알 한알 콩들이 어울려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콩알들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완두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011년 6월까지 지역 일간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경력이 18년 정도 되더라구요.

이 지역에서 농사가 아닌 다른 일로, 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닦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과정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래도 익숙하고 전에 했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고 가장 잘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기록해보자 해서 완두콩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이유?

대개 우리 사회는 저명하거나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뭔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기록하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완두콩은 그런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일상·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이 누군가한테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게 꾸준히 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서 2017년도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업적을 평가받아서 장관상을 수상했는데 그 역시 제도권 기록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기록하는 다양한 기록도 존중을 받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지역출판을 지속하는 이유?

지역출판에 관심을 갖자. 지역에서도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직접출판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완두콩의 장미경선생님이 삶의 풍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분들을 한 데 묶는 작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역시 저희들은 유명한 분들보다 평범하고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다. 그러한 지표 아래 그런 분들을 한 데 묶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출판을하게 되었고, 현재 2권까지 나왔고 지금 3권, 3번째 책을 편집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어떤 할머니를 취재했어요. 그 할머니는 83세가 되도록 산속에서, 산골에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당신을 인터뷰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자기같이 시골에 산골에 묻혀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분이 고산성당을 다니시는데 신부님이 어떻게 완두콩을 보시고 아는 척을 하셨나봐요. 할머니를 완두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봤다고, 그 후로 할머니가 자존감이 생긴거예요.

아 자기도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느끼신거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뿌듯해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 작은 영향을 미쳤구나,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완두콩의 활동이 완주에 미친 영향?

완두콩이 매월 내면 되게 구독하는 층이나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젊은 층이나,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 외지에서 완주에 견학을 오거나 완주라는 이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오다가 접했을 때 어떤 한 분은 이 완두콩을 보고 완주에 귀촌했다 하는 분도 있었고, 1호부터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모아두신 분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작은 매체가 어떤 이 부분에, 어떤 분에 영향을 미쳤구나, 그리고 작은 카페나 공공장소에 놔두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 우리가 있구나, 완두콩이 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있구나. 그런 걸 느끼죠.

앞으로 활동계획?

우리 구성원들이나 함께 완두콩을 잘 마무리하고 이게 발행되었을 때, 인쇄해서 나왔을 때 가장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이 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우리는 완두콩 발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계속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다만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고 싶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서구 작은 매체들 보면 봄이나,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완주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평화, 그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할 때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기에 좋은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일상적이고 평화로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 일이 이어지지 않을까, 중단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